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2.245>

JCCT 2024-3-30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한중 무역의 영향에 대한 연구

Research on the impact of Korea-China trade following the reopening of China

김동호*, 강동엽**

Dong Ho Kim*, Dong Ye Jiang**

요약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한국과의 무역 재개의 다양한 시사점, 즉 무역 구조 재편, 무역 정책의 변화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양국이 무역 분쟁을 해결한 방법 등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 경제적 관점에서 중국과 한국 간 무역의 진화를 평가하고, 정책 변화가 기업의 전략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분석하며, 이러한 변화가 글로벌 경제에서 양국의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논의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지역 경제 협력과 글로벌 경제거버넌스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미래 정책 결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어 : 한-중 무역, 한-중 자유무역협정, 중간재 무역, 글로벌 가치 사슬

Abstract This study will look at various implications of China's resumption of trade with Korea, such as trade restructuring, changes in trade policies and the impact on corporate competitiveness, and how the two countries resolved trade disputes. We will evaluate the evolution of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from a historical and economic perspective, analyze how policy changes have shaped corporate strategies, and discuss how these changes have affected both countries' positions in the global economy. Through this study, we aim to provide a deeper understanding of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global economic governance and insight into future policy decisions.

Key words :Korea-China trad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Intermediate goods trade, Global value chain

1. 서론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지금까지 양국의 무역관계는 확장과 심화를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중국의 무역 구조는 원자재 위주에서 중간재 및 첨단 제품을 포함하는 더 많은 제품으로 전환하며 제조업 경

쟁력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변혁은 중국의 완전한 산업 시스템과 지속적인 혁신으로 인해 글로벌 가치 사슬, 특히 전자, 기계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위치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한중 무역 협력은 점점 더 상호 보완적으로 변화하였다.

*정회원, 상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제1저자)
**정회원, 상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박사과정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1월 2일, 수정완료일: 2024년 1월 21일
게재확정일: 2024년 2월 1일

Received: January 2, 2024 / Revised: January 21, 2024
Accepted: February 2, 2024
**Corresponding Author: 2417113193@qq.com
Dept. of International Trade, Sangmyung Univ, Korea

2019년 기준 한중 양국 무역액은 2,434억 3,127만 달러[1]에 달했으며 그 중 전자제품 무역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동통신 등 전자산업 분야에서 전세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스마트폰, pc, 가전 제조 분야에서 급부상해 국내 시장 수요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망의 보완성은 양국 간의 안정적인 무역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중국의 경제력 성장과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직면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정책 압박을 강화했고, 이는 한중 경제무역관계에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한국의 무역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중 경제무역관계의 강화와 심화는 양국의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중국과 한국은 전통 및 신흥 산업에서 양국의 상호 보완적 이점을 더욱 발휘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같은 분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동시에 양측은 투자, 서비스 무역, 금융 및 시장 접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의 2단계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은 아시아 지역의 경제 협력과 무역 자유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회원국이다. RCEP의 구현은 한국과 중국에 보다 광범위한 시장 접근성과 심층적인 경제 통합 기회를 제공했으며 지역 공급망, 전자 상거래, 스마트 제조 및 기타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는 세계 경제에서 양측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및 세계 경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II.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의 목적

2020년에는 COVID-19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경제불황을 겪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전세계 GDP가 약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의 감소율보다 큰 수치이다. 1980년 이후 세계 경제 성장률이 -0.1%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9년 단 한 번뿐이며,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IMF -3.5%, 세계은행

-3.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제 혼란 속에서 각국은 서로 다른 새로운 전략을 취하였다. 미국의 경우,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에 의존하고 소비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유럽 지역은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가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신흥국 중 중국은 연초 COVID-19 사태가 진정되는 가운데 성공적인 방역 조치와 생산 활동의 조기 정상화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에 아세안 국가들은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소폭 개선되었지만,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경제 성장은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개발 파트너로서 양국의 이익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한쪽이 다른 쪽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따라 양국의 발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양국의 미래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야 서로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고 양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연구는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한·중간의 무역에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한·중 무역의 구조와 정책적 변화에 대해 연구하고, 제 4장에서는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교역의 변화와 한국 무역 활성화, 정책적 접근 방안에 대해 연구 하고 이에 따른 결론을 5장에서 도출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한중 무역 관계에 대한 심층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포괄적인 문헌 연구를 통해 견고한 이론적 토대, 무역 경쟁력 및 보완 분석과 같은 핵심 이론을 수립한다. 이러한 문헌연구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무역 흐름의 법칙과 특성을 밝히기 위해 무역량, 무역 구조, 수출입 상품 유형과 같은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한중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예를 들어 자유무역협정, 관세정책, 외부 경제, 정치 및 국제관계 요인에 초점을

맞춘 비교 연구를 포함하여 이러한 요인이 양국 무역 관계에 어떻게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였다.

3. 선행연구

Choi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의 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되었음을 언급하며,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라 한중 무역은 한국의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수입 무역은 경제 성장을 촉진시킨다고 강조하였다[2].

Jin, Ren & Wang은 2015년 한중 FTA 체결과, 2020년 코로나19가 한중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UN Comtrade 무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RCA, TC, TCI, 그리고 G-L과 같은 지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2015년 FTA 체결 이전, 중국의 RCA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으나, 체결 이후 회복 되었으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다시 하락했다고 분석하였다. TC도 RCA와 마찬가지로 경향을 보였으며, TCI는 한중 양국의 농산물 무역이 주로 보완성이 높은 5가지의 품종에 집중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G-L은 FTA 체결 후 상승세를 보였으나, 코로나 19 이후 하락하면서 보완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분석하였다[3].

Xie와 Xu는 DID(Differences In Differences) 분석과 한중 양국의 무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불매운동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손실이 30%에 육박했다고 분석하였다. 대체성이 높은 일상 소비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전자제품은 불매운동과 상관없는 품목으로, 이는 중국의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였다는 것과 함께 한국의 대중 수출 손실은 민간의 자발적인 소비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드 사태로 인해 일본, 미국, 독일 등의 국가가 수출이 증가하는 혜택을 봤지만 이는 단기적인 것으로 예상하였다[4].

Kim and Cheon은 코로나 사태 당시 중국의 봉쇄조치와 중국 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한중 교역이 균형을 찾아가고 있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2021년 이후 대중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의 대중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에 집중된 반면, 수입은 부품, 소재와 같은 품목으로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심화되었기에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단기적인 대중 무역 적자 해소와 중장기적인 구조 변화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산업경쟁력 강화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산업기술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5].

Zhang은 GTAP 모델을 활용하여 TPP/CPTPP 그리고 일대일로 정책을 택했을 때, 한국의 경제적 복지와 산업 충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TPP/CPTPP는 자원 및 노동 집약적 제품과의 보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었고, 일대일로 정책은 기술 집약적 제품과의 보완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 되었다. 전반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두 정책에 모두 참여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으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기간산업에 도움을 주는 일대일로 정책에 참여를 하고, 이후에 TPP/CPTPP에 가입하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6].

III. 한중 무역 구조와 중국의 정책변화

1. 한중 무역 구조의 변화와 발전

한중 무역 구조는 단일 구조에서 점차 복합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 무역의 비대칭적 의존도가 가장 큰 특징이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 구조는 상호보완성이 높으며, 양국은 무역 협력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과학기술과 제조업이 발달한 반면,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풍부한 자원과 넓은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 간 무역은 주로 제조업, 전자제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긴밀한 경제 무역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양국 간 수출입 무역은 2007년 1,601억 7,300만 달러에서 2020년 2,213억 7,400만 달러로 연평균 2.7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2020년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의 5번째,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며 양국 경제 무역 관계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발전하고 있다. 1992년 이후 한국은 주

로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주로 저급 제조품을 한국에 수출하여 양국 간 구조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무역을 형성했다. 그러나 중국의 생산성이 급속히 발전하고 생산 모델이 향상됨에 따라 양국 간 무역은 점차 산업 간 무역에서 산업 내 무역으로 전환되고 유사 제품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졌다[7].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한중 관계는 산업 구조의 상호 보완과 협력을 통해 다자간 국제 무역 질서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초기에는 순수 경공업과 중화학 제품이 주를 이루었으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했다. 또한, 한중 무역은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유지해 왔다. 중국은 한국에게 비교우위의 고부가가치 핵심 중간재를 공급함으로써 한국의 주력산업이 성장하는 동안 한국의 산업 고도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었다. 2022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 중국은 산업 고도화 전략을 통해 세계 최대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했다. 중국의 무역 환경도 급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첨단 기술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 관계의 재구축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1992년 당시 한국은 철강제품, 합성수지, 섬유제품 등을 수출하고 식물성 원료(사료), 원유 등을 수입하는 산업간 교역 형태를 주로 보였으나 양국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컴퓨터 등 산업내 교역 형태로 전환했다. 중국은 상품 구조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고 전자 제품 및 첨단 기술 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양측의 경제 발전 수준과 경제 발전 전략이 변화함에 따라 표 1과 같이 수출입에서 차지하

표 1. 한국의 중국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8]
Table 1. Korea's top 10 export and import items to China

순위	한국의 중국 수출			한국의 중국 수입		
	1992	2011	2021 (1-10)	1992	2011	2021 (1-10)
1	스틸 에디션	평면 디스플레이	반도체	식물성 재료	반도체	반도체
2	합성수지	반도체	합성수지	석유 화학	전자 컴퓨터	전자 컴퓨터

3	강철 철근	석유 제품	평면 디스플레이	섬유 직물	스틸 에디션	정밀 화학 원료
4	가죽	합성수지	석유 제품	클링 커	무선 통신 장비	무선 통신 장비
5	합성 섬유	자동차 부품	광학 기기	석탄	평면 디스플레이	스틸 에디션
6	직물	석유 화학 합성 원료	석유 화학 합성 원료	우븐 실크 원단	의상	산업용 전기 장비
7	종이 제지 용품	무선 통신 장비	비누, 치약, 화장품	곡물	산업용 전기 장비	의류
8	화학 기계	석유 화학 중간재	반도체 제조 장비	정밀 화학 원료	정밀 화학 원료	건전지, 배터리, 축전지
9	석유 제품	스틸 에디션	전자 컴퓨터	코튼	기타 대형 가전 제품	자동차 부품
10	석유 제품	원유	무선 통신 장비	기타 농산물 수산물	건축 자재, 강철	가구

는 다양한 상품의 비중과 증감률도 변화했다.

1) 한중 가공무역 구조 변화

한국의 무역 구조는 원자재에서 부품과 중간재로 바뀌었고, 제품도 노동 집약적에서 기술 집약적으로 바뀌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후 한국의 대중국 전자 제품 및 자동차 부품 수출은 크게 증가하여 중국이 전자 산업의 글로벌 가공 및 조립 센터가 되는 데 기여했다. 한국의 중국 수입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48.6%에서 2021년 64.5%로 증가했고,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의 비중은 1992년 74.1%에서 2021년 80.1%로 증가했다. 이러한 한중 무역의 특징은 가공무역의 비중에도 반영되어 있다. 2020년 중국의 한국 수입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9.6%로 중국 전체 수입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인 19.6%의 두 배에 달하였고, 보세구역에서의 수입 원자재 가공을 고려하면 이 비중은 훨씬 더 커진다. 중국의 가공 무

역은 2000년 이후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과 한국 간 투자-생산-수출 패턴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

3) 한중 상품무역 구조 변화

1990년대 초 한중 양국 간 교역은 농산물, 광물성 연료, 인조섬유 필라멘트 등 1차 제품과 원자재가 주를 이루었다. 한국은 주로 섬유원료,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을 중국에 수출했고, 중국은 농산물, 섬유, 광물성 연료, 철강제품을 한국에 수출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컴퓨터 및 휴대폰 부품, 자동차 부품 등이 주요 교역품목으로 부상하면서 전기전자제품의 교역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한중 교역 구조는 원자재에서 부품 및 중간재로, 노동집약적 제품에서 기술집약적 제품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과 한국 간 다양한 산업의 무역 경쟁력은 크게 변화했으며 전반적으로 중국의 대한국 무역 경쟁력 지수는 점진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다. 1992년 중국의 대한국 무역 경쟁력 지수는 -0.01이었으나 2010년 0.023으로 상승했으며 2020년에는 0.142를 기록했다. 세부 산업 부문별로 보면 2020년 중국의 무역 경쟁력 산업은 기타 제조업, 농림수산업, 양식업 등이 있다. 특정 산업 측면에서 2020년 중국의 무역 경쟁력에는 기타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양식업, 섬유제품, 기타 경공업 및 운송 장비가 포함되며 무역 경쟁력 지수는 각각 0.91, 0.84, 0.69, 0.53 및 0.36이다. 이러한 산업 중 농업, 임업 및 양식을 제외하고 1992년 수교 초기 단계의 무역 경쟁력 지수는 적자이거나 거의 0에 가까웠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런 변화는 해당 분야에서 중국의 무역 경쟁력이 약세에서 강세로 바뀌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화학 제품, 금속 제품, 일반 기계 및 전기 전자 산업의 무역 경쟁력도 크게 증가했다. 이에 반해 무역 경쟁력이 하락한 산업은 광업, 식료품, 비금속광물, 정밀기기 등이다.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최근 몇 년간 중국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연평균 성장률이 한국 제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주로 기술 진보에 기인하며, 이는 또한 중국 제조업의 변화와 성장과정에서

기술 진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반영하는 지표이다.

2.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정책 변화

한중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중요 정책 변화로는 크게 개혁-개방 정책, 일대일로 정책, FTA 구축, 산업 구조 조정이 있다.

첫째, 개혁-개방 정책은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중국 경제는 급속한 발전을 이뤘고 대외 무역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한국과 중국은 긴밀한 무역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수출 시장이자 투자처가 되었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심화됨에 따라 양국 간 무역은 더욱 긴밀해질 것이며 양국 간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중국의 '12차 5년 계획'에서 '수출 안정화, 수입 확대, 무역 흑자 감소' 전략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이러한 변화는 수입 확대를 통해 국내 시장의 상품 다양성을 늘리고, 현지 기업에 새로운 투자 및 협력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 산업의 개발 및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조치는 또한 중국이 과거의 단일 수출 지향 경제 구조에서 보다 균형 있고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고자 함을 보여준다. COVID-19 기간 동안 글로벌 공급망의 중단과 국제 시장 수요 감소로 인해 중국은 국내 시장과 소비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수입 관세 인하, 수입 절차 간소화, 수입 상품 유형 증가, 국제 협력 및 무역 협정 강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수입 증가를 촉진했다.

둘째, 일대일로 정책은 2013년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연선하는 국가와의 경제, 정치, 문화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대일로 정책(Belt and Road Initiative; BRI)을 제시했다. 한국은 일대일로 정책의 중요한 노드 국가로서 중국의 이러한 계획에 적극 호응하여 인프라 건설, 생산 능력 협력,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 왔다. 일대일로 정책은 한중 무역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양국 간 무역 구조를 더욱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Feng은 일대일로의 5개 중 2개의 코스가 정저우시를 관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8년 중국 정저우

시의 수출입 총액은 622억 달러에 달하여 2009년에 비해 약 10배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일대일로 정책을 지지하고 실행하는 것이 지방과 국가의 무역 발전을 촉진하는 데 더욱 유리함을 보여준다[9]. 중국이 내놓은 일대일로 정책은 대외 무역 정책 전환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계획은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연선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국제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중국 상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 및 운영에 더 많은 기회를 창출했다.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을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및 유럽과 밀접하게 연결하고 이러한 지역과의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한다. 한중 간 무역 관계도 이런 배경에서 강화되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일대일로 정책 추진으로 양국의 무역 왕래가 더욱 빈번해졌다. 중국은 한국에서 주로 전자제품, 기계장비, 화학제품을 수입하고, 섬유, 의류, 철강제품을 수출하였다[10]. 또한, 양측은 전자 상거래, 금융 서비스, 관광 및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수행했다.

셋째, FTA 구축은 중국과 한국은 2015년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체결하고 2016년에 발효했으며, FTA 체결은 양국 간 무역 장벽을 낮추고 양국 무역의 발전을 촉진했다. 한중 FTA의 이행을 통해 중국과 한국은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더욱 유리한 대우를 받았으며, 이는 양국의 무역 구조를 더욱 최적화하고 양국 무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이 체결되면서 한·중 경제무역관계는 더욱 강화됐다. RCEP는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하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 중 하나이다. 이 협정의 체결은 회원국 간의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위한 더 넓은 플랫폼을 제공하며, 이는 한중 간의 무역 장벽이 더욱 낮아지고 무역 편의성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RCEP의 가입은 한국과 중국의 경제 및 무역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넷째, 산업 구조 조정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산업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업 전환과 향상

을 장려하며 신산업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한중 무역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산업 구조 조정으로 일부 저부가가치 산업이 다른 국가로 이전되어 한국의 제조업 및 기타 산업에 경쟁 압력을 가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신흥 산업 발전으로 한국 기업에게 친환경 자동차, 인공 지능 등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제공했다[11].

IV.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무역의

변화와 영향

1. 한중 무역량의 변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후 중국의 대외 무역은 유연성을 보였고, RCEP의 시행 1주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1분기 중국과 RCEP의 다른 14개 회원국의 총 수출입액은 3조8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으며 일본과 한국의 수출입 규모는 각각 중국과 RCEP의 다른 회원국의 수출입 1, 2위를 차지했으며 규모는 모두 5000억 위안을 초과했다. 이는 한중 경제무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올해로 19년 연속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2022년 한중 무역액은 3622억 달러로 전년 대비 0.1% 증가하였다. 한중 양국 무역의 발전에 대해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물류 운송, 식량 안보, 수소에너지, 자원 광산 등 반도체 이외의 분야에서 한중 공급망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2].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RCEP 시행으로 한국 경제는 상품관세 인하와 함께 한국에 0.41~0.62%의 GDP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13]. RCEP 시행 후 RCEP 지역 내 가치 사슬의 연관성은 RCEP가 원산지 규칙과 규범을 통일하여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한중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CEP 협정을 통해 지역 내 생산 네트워크의 효과적인 활용이 실현되고 국가 간의 지역 가치 사슬 연결이 증가하면 지역 가치 사슬 및 세계 경제에서 RCEP 파트너 국가의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하여 한국과 중국 경제가 모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건

설은 아직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대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지만, 앞으로 왕래와 교류 정상화로 상호 협력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한중 자유무역지대 건설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세계 최대의 내수 시장과 막대한 소비력을 가진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였으나, 2016년 사드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중 관계가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하여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등 모든 협력관계가 부진한 상황이며, 특히 경제관계에서는 사드 사태로 인해 롯데를 비롯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시에 중국의 산업기술 경쟁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산업기술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하여 본격적인 분업 경쟁관계로 접어들고 있다. 2017년 한-중 교역은 전년대비 13.4% 증가한 2,399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2017년 3월 중국은 방한 단체관광객이 감소하자 단체여행을 금지하고 한국 전세기 및 크루즈 선 운항을 금지하는 등 한한령(限韓令)을 발동했다. 한편, 중국은 한국산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통관을 강화하고 수입을 제한하였고,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두 차례나 실시했으며, 한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을 지속하고 있다. 양국 관계의 급격한 악화는 한국 소비재에 대한 중국 시장에도 직격탄을 날렸고, 이는 중국 소비자들의 반한 감정을 촉발시켰다. 2018년 한중 FTA 발효 4년차를 맞이한 한-중 교역액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2,686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드 이슈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사드 배치 이후 한국의 높은 대중국 의존도는 한국의 발전을 제약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한국은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동남아 국가로 눈을 돌렸다. 또한 중국의 가공무역 규제와 '중국 제조 2025' 정책이 한국의 주력 산업과 겹치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중국 제조업 및 가공무역의 흑자 및 긍정적 효과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리오프닝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먼저, 시장 경쟁 심화는 중국이 한국과의 무역을 재개하면 양국 기업 간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중국은 자원이 풍부하고 생산 비용이 저렴한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로서 중국 제품은 한국 시장에서 더 큰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 무역이 재개되면 중국산 제품이 한국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와 한국 기업에 더 큰 경쟁 압력을 가할 것이다. 동시에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 특히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한 자회사와의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중국내 기업 및 다른 국가의 경쟁사와 시장 점유율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둘째로, 중국의 한국과의 무역 재개는 양국 기업이 산업 체인을 통합하고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조업, 서비스업 및 기타 분야에서 중국과 한국은 상호 보완성이 강하기 때문에 무역 재개는 양국 기업이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산업 체인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기술 연구 개발과 브랜드 마케팅에 강점이 있고, 중국은 제조와 공급망 관리에 강점이 있다. 협력을 통해 양국 기업은 공동 발전을 달성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하나의 예시로, 중국 정부가 2009년 '자동차 공업의 조정과 진흥에 관한 계획'을 발표한 후 현대자동차는 중국 쓰촨성에 난촨자동차와 함께 합작법인인 '쓰촨현대'를 설립하였고, 해당 기업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4]. 또한, 혁신과 협력 기회는 중국의 한국과의 무역 재개는 양국 기업 간 혁신과 협력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무역 마찰 기간 동안 중국과 한국 기업은 공급망 붕괴, 시장 변동성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무역 재개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양국 기업에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 기업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리고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술 연구 개발, 시장 확대 및 기타 분야에서 중국 기업과 협력하여 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할 수 있고, 이는 양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대응 전략 조정은 중국의 한국과의 무역 재개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무역 마찰 기간 동안 일부 한국 기업은 생산 라인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고 대체 시장을 찾는 등의 전략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무역이 재개됨에 따라 이들 기업은 중국에서의 기회와 도전을 재평가하

고 시장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시장 경쟁에 대응하고 상생 발전을 이뤄야 한다[15].

3. 중국 리오프닝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COVID-19이 점차 통제됨에 따라 국내 경제 활동이 점진적으로 재개되면서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 회복은 대외 무역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는 한국 경제 회복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장 먼저,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는 한국의 수출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16]. 중국은 한국 전체 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중국 경제가 점차 회복되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해 한국의 수출 증가세를 견인할 것이다. 또한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 중국 상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도 증가하여 한국의 중간재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 내 경제활동 재개는 자국의 고용 상황에도 기여할 것이다. 중국 경제 회복에 힘입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면서 한국 내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있다. 2019년 한국의 중국 수출은 한국 전체 수출의 25.1%를 차지하며 한국 내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처럼,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는 한국의 경제 상황은 물론이고, 고용 상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경제활동 재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회복되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우리 경제가 너무 빨리 회복되면 한국의 수출에 경쟁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한국의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17].

4. 한중 무역 활성화와 중국의 정책적 방안

1) 무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중국은 보다 개방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역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다. FTA 발효 이후 관세와 쿼터의 대폭적인 인하로, 보다 자유로운 무역 환경이 조성되어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이 촉진되었다. 특히 웨이하이의 한중 자유무역시

험구(FTZ)를 비롯한 경제협력구는 양국의 기술 교류를 촉진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한편 일대일로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게 지역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양국 간 무역 관계를 강화했다. 인적 교류와 부문 간 정책 협력의 촉진은 기술 혁신과 제조업 확장에 있어 양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중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은 자유 무역협정 확대와 관세 무역 원활화부터 투자 보호와 인센티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인프라 개발과 무역 금융 지원은 운송 및 거래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며, 시장 접근 정책과 경제 및 무역 대화는 기술 및 규제 차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자상거래 촉진, 품질 보증, 문화 및 인적 교류는 무역의 다양성을 가져오고, 질을 향상시켰다. 동시에 녹색 무역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은 무역 성장을 보장하는 핵심 조치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국제 무역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연계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한중 무역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양국간 경제 통상 전략

한국과 중국의 경제 및 무역 전략은 역내 경제 협력과 글로벌 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한국과의 무역 장벽을 낮추는 등 대외 개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한편, 첨단기술 및 지적재산권 무역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중국이 추진하는 지역 경제 협력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 호혜적인 경제 및 무역 전략은 양국 간의 경제 관계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무역 구조의 최적화와 고부가가치 상품 교역을 촉진하여 양국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3) 양국간 무역 분쟁 메커니즘 구축 방안

현재 중국과 대한민국 간의 오랜 무역 불균형은 양

국 간의 경제 및 무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중 양국 간 무역 환경을 개선하고 양국 간 수출입 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려야 한다. 중국과 한국 간의 무역 적자는 중국의 산업 구조가 한국에 비해 뒤쳐져 있고 단기간에 한국의 상위 산업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 구조가 조정되면 한국에 대한 수출 구조가 개선되어 무역 적자가 완화될 것이다.

무역의 발전은 양국의 정치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중국과 한국의 무역이 발전하는 동안 양국 간의 무역은 불안정한 정치 정책 변화로 인해 많은 시련을 경험했다. 예를 들어,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마찰과 2020년 COVID-19은 중국과 한국 간의 무역에 충격을 가져 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양측은 정기적으로 무역 문제에 대해 협상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간 무역에서 관련 WTO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 구조가 조정되면 한국에 대한 수출 구조가 개선되어 무역 적자가 완화될 것이다.

양국은 피해가 막심하지 않도록 산업이익을 추구하면서 동반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은 이런 목적에 부합하고, 한중 무역 발전에 양국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2015년 중국과 한국은 '제 3국 시장 공동 진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관련 세미나와 포럼을 열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중국과 한국 정부가 일대일로와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한중 협력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21세기에는 경제 세계화와 지역화가 세계 경제 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정책 아래 한중 양국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18].

V. 결 론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한국과 긴밀한 무역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였고 양국의 무역 관계는 제조업, 전자 제품, 자동차 및 화학 산업에서 높은 수준의 상호 보완성을 보였다. 2013년에 '일대일로' 정책 시행은 인프라와 무역 및 투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양측 무역에 새로운 기

회를 제공하였고, 2015년 체결된 한중 FTA는 양측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무역과 투자를 더욱 발전시켰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산업구조 조정은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여 한국의 제조업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무역 구조는 원자재에서 전자 제품과 같은 기술 집약적인 제품으로 전환되었고, 중국의 제조업 중요소생산성의 성장은 한국을 추월하는 기술 진보를 보여주며 커다란 경쟁력 향상을 이루었다.

양국은 피해가 막심하지 않도록 산업이익을 추구하면서 동반성장을 역 정책을 조정하고 수입에 중점을 두며 경제 구조를 최적화했다. 수입 관세를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수입 상품의 유형을 늘리고 국제 무역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RCEP의 체결은 한중 경제 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되었고 무역 장벽이 낮아져 무역 편의성이 향상되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중국 수입 무역의 변화와 RCEP의 시행으로 한국과 중국의 경제 무역 관계도 상당한 변화와 영향을 미쳤고, RCEP 시행 후 한중 경제는 상품 관세 인하와 공급망 협력 강화를 통해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 되었고 이를 통해 한중 경제 및 무역 관계는 더욱 향상되며 양측은 더 많은 경제적 이익과 발전 기회를 누릴 수 있다.

한중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관세 및 할당량을 낮추고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을 촉진하며 무역 시험 구역 및 경제 협력 구역을 설정하고 기술 무역 및 금융 협력을 추구하였다. 또한, 인적 교류를 통해 양자 경제 무역 협력을 증진하고 기술 및 지식 이전을 제공하며 산업 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 그러므로써, 무역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중시하고 협정을 체결하고 규정을 준수하며 공동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연계하여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한·중 무역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협력과 글로벌 경제 통합을 이룰 수 있다.

한중 무역 관계를 촉진하고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술 및 혁신 협력, 특히 전자, 자동차 및 화학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 양국의 기술 혁신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산업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둘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역 장벽을 더욱 낮추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여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인재와 정보 교환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이는 양국의 교육 협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기술과 지식의 이전과 서로의 시장과 문화를 이해하는 더 많은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측이 협력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효과적인 무역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이러한 포괄적인 조치를 통해 중국과 한국은 기존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상생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

References

- [1]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60&tblId=DT_1R11006_FRM101, Dec 2023
- [2] So Ra Choi, "Research about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nd its effect on Korea's economic growth", *Marketing Management Review*, Master thesis, 2020. DOI: 10.19932/j.cnki.22-1256/f.2019.05.013
- [3] JIN XU, Ren Jia Zheng and Wang Yihan, "Research on the Competitiveness and Complementarity of Agricultural Products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Focusing on the Conclusion of the Korea-China FTA and the Comparison Before and After COVID-19",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9, No.4, pp.129-153, 2022. DOI: 10.18107/japs.2022.29.4.005
- [4] Jianguo Xie and Pingping Xu, "The Impact of International Political Conflicts on International Trade: An Empirical Research Based on the THAAD Incident", *The Theory and Practice of Finance and Economics*, Vol. 40, No. 6, pp.106-113, 2019. DOI: 10.16339/j.cnki.hdxbcjb.2019.06.059
- [5] D. S. Kim, and G. H. Cheon, "Structural Changes and Policy Implications in Korea-China Trad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22.
- [6] Wenqi Zhang, "South Korea's Choice between TPP/CPTPP and BRI -- An Analysis Based on GTAP Model, *Marketing Management Review*", *Marketing Management Review*, Master thesis, 2020. DOI: 10.27155/d.cnki.ghqiu.2020.000765
- [7] Ikjoon Moon, "10-Year Evaluation and Prospect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BRI): Focusing on Three Northeast Provinces", *China Knowledge Network*, Vol.21, No.21, pp.61-101, 2023.
- [8] <https://stat.kita.net/newMain.screen>, Apr 2023
- [9] Feng Ji Li and Young-ming Kim, "The Effect of the Government Policy on Foreign Trade of Zhengzhou",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4, pp.295-300, Nov 2020.
- [10] <https://www.un.org/zh/library/page/databases>, Apr 2023.
- [11] https://view.inews.qq.com/k/20231113A05SQB00?no-redirect=1&web_channel=wap&openApp=false, Nov 2023.
- [12] S. H. Oh, H. M. Han, W. H. Yeon, B. R. Lee, and J. H. Kim,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Tentative Agreement: Meaning and implications",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19.
- [13] S. B. Hyun, S. Y. Na, Y. S. Kim, and S. K. Jeon, "25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economic cooperation",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17.
- [14] Zhang Qingqing, "Strategies in China Heavy-Duty Truck Market from the Perspective of Design Thinking - A Case Study of Sichuan Hyundai",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IJACT)*, Vol.6 No.3, pp. 105-116, 2018. DOI: <https://doi.org/10.17703/IJACT2018.6.3.105>
- [15] Sangjun Jeong, "Cross-Border Appropriation of Value Added Through Trade: Global Value Chain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Kor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35, No.1, pp. 41-81, 2022. DOI: 10.17964/rses.2022.35.1.41
- [16] J. G. Lee, P. S. Yang, H. T. Lee, J. H. Oh, G. U. Cho, S. J. Kim, B. Y. Kim, K. S. Kim, I. J. Moon, C. S. Lee, and Y. R. Jeong, "Structural Changes in the Chinese Economy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16.
- [17] Feng De Jin, "Policy Articles : Sino-Korea Economy and Trade Concerns for Mutual Future Prosperities",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Studies*, Vol.11, No..2, pp. 209-234, 2006.

- [18] Fuyuan Sun, ““One Belt, One Road” China and South Korea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Marketing Management Review*, Master thesis, 2020, DOI: 10.19932/j.cnki.22-1256/f.2019.05.0131